



<공공디자인, 전후 유럽의 가구> 전시 전경, 스페이스 이수, 2023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31기 신입사원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이수 튜브

일상 예술화

이수 테이블

핫!하게 스트레스 날려주는 - 아귀짬

스페셜 리포트

노벨상과 특허, 기업 전략의 도구로!!

ISU PLACE

르 코르뷔지에 등 공간 예술가들의 <공공디자인, 전후 유럽의 가구>

CONTENTS



06 신년사

08 Focus & News

13 Young ISU

공채 3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20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장재혁 대리(이수엠지스 인사총무파트)
어주호 대리(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재경팀)
이승환 책임(이수페타시스 마케팅팀)



24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문성진 대리(이수엑사캠 기획팀)
김나영 선임(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윤혜령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총무파트)

28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최원규 대리((주)이수 기획팀)
최자윤 선임(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32 이수튜브

예술 소비자로 일상을 채우는 내비게이션
일상 예술화

38 이수 테이블

스토리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햇하게 스트레스 날려주는 - 아귀찜



44 스페셜 리포트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수
노벨상과 특허,
기업 전략의 도구로!!

52 ISU PLACE

공공디자인, 전후 유럽의 가구
(Design for All, Post-War Europe Furniture)

57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58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르 코르뷔지에, 장 프루베, 샤를로트 페리앙, 스튜디오 BBPR, 난나 님젤 등이 디자인 한 전후 유럽의 공공디자인 가구를 한 자리에 모아 가구 디자인의 황금시대를 조명하는 <공공디자인, 전후 유럽의 가구>전이 2월 2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 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4년 신년호 통권 115호

발행일 2024년 1월 24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확(김천희 안인연)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정구-이하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김민주) 이수시스템(서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엠지스(양예슬) 이수엑사캠(박성호)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 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격량이 예상되는 2024년의 여정,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세 가지 당부

열린 자세와 과감한 실행력, 성과 창출로 이어지길





이수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급격한 경기 악화와 맞물려 실적은 이전 대비 저조하였으나, 더 큰 성장을 위해 역량을 모으는 '축적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수화학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하나의 회사에서 각자의 사업적 성장을 위해 분할이라는 의사 결정을 하였고, 단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산업의 성장 전망에 대응하여 대규모 증설 투자를 진행하였고, 페타시스 후난법인도 그간 지속해온 기술 개발의 성과로 2년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앱지스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창사 이래 최초로 턴어라운드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그룹 내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의 시황 악화 및 시장경쟁 심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격량이 예상되는 2024년의 여정을 함께할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는 혁신을 일상화하고, 연구 개발에 더욱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의 사업적 기회를 사전에 포착하고 준비했을 때, 비로소 '퀀텀점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과 기회 탐색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정체성' 또는 '회사의 기존 사업 역량'이라는 틀로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영역의 제한 없이 사업기회를 철저히 도모하는 열린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에서 실패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제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만큼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기가 표면화될 때는 이미 대응에 늦은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극복을 위해 훨씬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는 위기 요소를 도출하여 리스크를 항상 점검하고, 위기가 감지될 때는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 과감한 실행력을 갖춘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올해에는 그간의 노력과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투지로 무장하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각 사는 사업적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며, 조직 내에서의 개인 또한 성과로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2024년은 각 사가 목표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여 한 단계 점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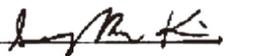
친애하는 이수 가족 여러분,

2024년, 저는 이수그룹 내의 모든 회사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영 환경이 어려우나, 우리는 그간의 역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와 열망을 가진다면,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노력의 과실은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자랑스러운 미래로 돌아올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2.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이수화학

美 KBR과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
MOU 체결



이수화학은 지난해 11월 10일 두바이에서 KBR과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암모니아 크래킹은 열을 가해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청정 수소의 공급을 위한 중요 기술 중 하나다. 이수화학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수화학 김동민 대표는 “글로벌 선도 엔지니어링 업체인 KBR과 사업 협력을 통해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금번 업무협력을 통해 이수화학은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상업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대전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목요일부터 27일 금요일 양일간 부스를 설치하여 물적분할 이후 본격적인 향후 목표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화학공회회는 화학공학자들 간의 기술과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장려하고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를 통해 국내 학술 수준 향상에 노력하며 산학협동과 교류를 통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이수페타시스

4억 불 수출의 탑 수상 &
대통령 표창



이수페타시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4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챗 GPT로 대변되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1988년 11월 500만 불 수출의 탑 첫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4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했다. 또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최창복 이수페타시스 대표이사는 “최근 AI(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생산·기술 도전과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수건설

23-A-00
부대시설공사(1156)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해 10월 31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23-A-00 부대시설공사(1156)’를 수주하였다. 본 공사는 충북 영동군 일대에 이글루(igloo) 형 탄약고 9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수건설 단독 시공으로 2025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수건설은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종합심사 낙찰제 및 기술제한 사업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 부문 등 수주 영업활동을 진행하여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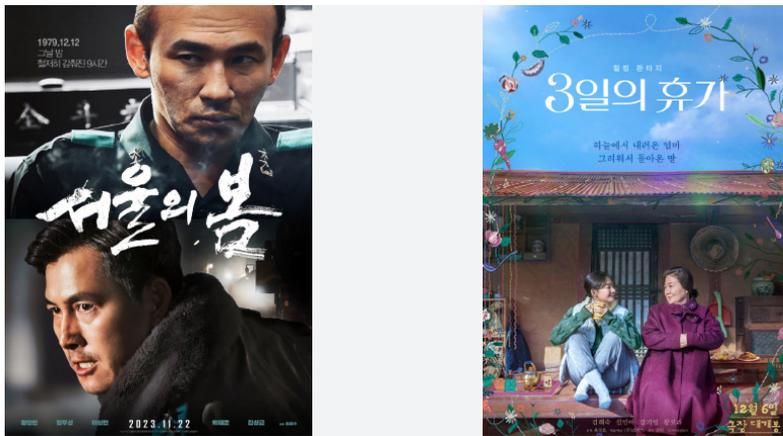
그룹 IT 전산 워크숍 실시



이수시스템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략사업본부 주관으로 그룹 IT 전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각 계열사별 IT 관리자 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있는 IT 서비스와 향후 도입 적용할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IT 트렌드 읽기를 목적으로 초빙한 여러 외부 IT 업체의 기술 소개 코너를 끝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쳤고, 다음날에는 인원 별 액티비티 활동이 진행되며 성황리에 워크숍이 종료되었다. IT 워크숍 담당자는 “이수시스템은 앞으로도 그룹사에 더욱 우수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수창업투자

영화 <서울의 봄>, <3일의 휴가>



이수창업투자는 영화 두 편을 선보였다. <서울의 봄>은 지난해 11월 개봉 후 흥행 질주 중인 영화로 '10.26 사건' 여파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12.12 군사 반란' 당일의 급박했던 9시간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 실제 사건을 다룬 점에서 남다른 무게감을 선사하고, 화려한 라인업과 배우들의 메소드 연기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3일의 휴가>는 '국민 엄마' 김해숙과 신민아가 모녀 호흡을 맞춘 힐링 판타지 영화이다. 3일간의 휴가를 받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엄마와 엄마를 기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로 가족애에 대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영화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앱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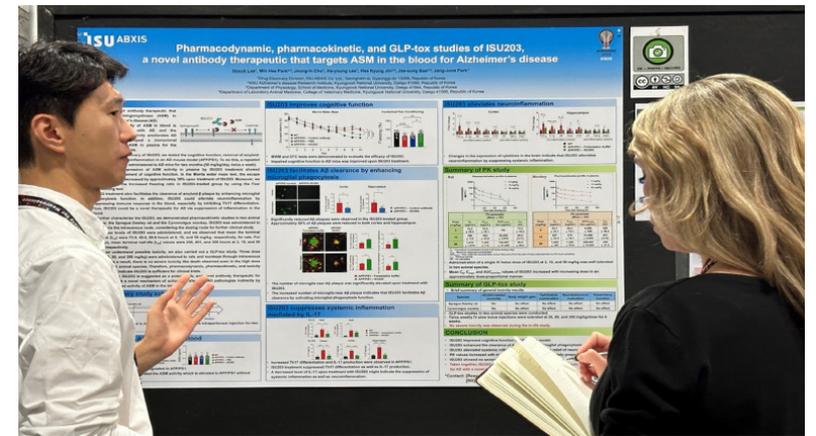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2023년 보건산업 성과 교류회 시상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독과점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대체제 확보를 통해 공급 안정성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공헌하고 중동, 중남미 시장 진입을 통해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보급 성과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 및 BMS의 오피노 바이오시밀러 'ISU106'의 해외 기술 이전 등이 주요 공적으로 꼽혔다. 황엽 대표이사는 “이수앱지스의 강점은 애브서틴 및 파바갈, 클로티넵 등 3종의 약물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앱지스

바이오유럽 및 뉴로사이언스 참가... 주요 파이프라인에 높은 관심 확인



지난해 10월 6-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시회인 '바이오유럽(BIO-EUROPE) 2023'에 참가하여 파트너링을 진행,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치료제 ISU203, 표적항암치료제 ISU104 등의 라이선스아웃(L/O)을 위한 관심업체들 미팅이 주를 이뤘다. 이어 11~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뇌신경과학 학술대회인 '뉴로사이언스 2023'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ISU203의 작용기전(MoA), 동물실험 효능, 비임상독성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키스톤 심포지아, NDS, AAIC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지난해 ISU203 발표의 대단원 막을 내렸다.

이수엑사캠

중국국영석유공사 주최
국제협력포럼 및
조인식 참석



이수엑사캠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가 주최한 제6회 CNPC 국제협력포럼 및 조인식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기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수엑사캠 서기호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발전 동향 및 국제 협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고, '23~24년 TDM 7,090 MT 공급 계약 체결 이행과 향후 협력에 관한 MOU Signing Ceremony'를 진행하였다.

이수AMC

독서동호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
쌀 나누기 봉사



이수AMC 독서동호회는 지난해 11월 들나무봉사단과 함께 성북동 북정마을에 2,3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온기와 정을 나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더행복나눔>을 통해 기부금으로 마련한 2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위한 쌀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를 실천할 예정이다.

2024년 용띠 해, 이수그룹에서 새 출발을 하는
새내기 사원 모든 분들의 비상을 응원하며...

공채 31기 신입사원
30명을 소개합니다.

이수화학

2024년 용의 해에 이수그룹의 새내기 가족을 맞이합니다.
머리는 낙타, 뺨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몸통은 뱀,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 등을 닮은 용은
오랜 세월 다양한 환경을 극복할 힘을 기른 후 때를 만나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길러 오다가
이수그룹에 첫 발을 딛는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용이라는 상징적 동물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처럼
지금까지 길러온 글로벌 인재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수그룹에서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김판성 사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김민석 사원, 박서영 사원, 김현석 사원



양두열 사원, 정진기 사원, 김래언 사원, 엄대용 사원, 고진수 사원

이수페타시스



변제욱 사원, 김수현 사원, 권용우 사원, 노유미 사원, 이효은 사원, 석진원 사원



김준우 사원, 이재이 사원, 김성엽 사원, 정우진 사원, 윤성환 사원

이수시스템



김민서 사원 (위), 박인하 사원 (아래), 정성구 사원, 이성희 사원 (위), 박수진 사원 (아래)

이수앱지스



임태균 사원 (위), 손지원 사원 (아래), 박상진 사원, 안세은 사원 (위), 신혜원 사원 (아래)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 줘!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다른 수많은 취미와 구별되며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직접적이다.
 한 곡의 음악으로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고무, 때론 먹먹한 감동으로
 심신에 안마를 받는 듯 그 저릿한 순간...
 우리는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신세를 진 바 있어
 다른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 코너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간접경험도 진하다 진하다.



오래전 여행 추억 소환하는 친구의 모닝콜, 바로 그 음악

장재혁 대리 | 이수앱지스 인사총무파트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요즘 뭐 하고 지내?'라고 하면 항상 "맨날 똑같지 뭐"라고 대답합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들을 미뤄 놓지 않았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미루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들과 말레이시아를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노래가 함께 갔던 한 친구의 모닝콜이어서 아침마다 이 노래로 눈을 떴는데,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당시 여행 기억을 소환시켜 주는 곡입니다. 저와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순 없어도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마음 졸이는 두 남녀의 속 사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mment

'오빠야'로 시작하는 도입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담긴 가사는 제가 받은 고백은 아니지만 저까지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빠야
 신현희와 김루트

신현희와 김루트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이순간 이대로
브라운 아이즈(Brown Eyes)
- 내게로 와 Come To Me
클래지콰이
- Painkiller
루엘 (Ruel)
- how deep?
Tai Verdes

Shivers

Ed Sheeran(에드 시런)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Perfect
Ed Sheeran(에드 시런)

Payphone
Maroon 5(마룬 파이브)

We Don't Talk Anymore
Charlie Puth(찰리 푸스)

Can't Feel My Face
The weekend(위켄드)

I Ain't worried
OneRepublic(원리퍼블릭)

목소리가 잘생긴 뮤지션 후련하게 심장을 강타하는 비트

어주호 대리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재경팀

지난해 5월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한지 어느덧 7개월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매년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여 작년엔 수영, 커피(바리스타)를 배웠고 올해는 또 어떤 걸 배워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에드 시런을 좋아해서 종종 듣던 곡이었는데 마침 유튜브에 추천곡으로 나와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에드 시런은 못생겼다(?)는 평을 듣는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는 참 잘생긴 편입니다.

'Shape of you'는 유명하니 다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요즘 곡을 들으면 유사한 성격의 곡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자동 추천되니 에드 시런 곡을 먼저 시 권합니다. 경쾌하고 강한 비트가 참 매력적인 노래라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mment

Shiver는 '몸의 떨림'이라는 뜻인데, 사랑에 빠진 남녀의 감정을 Shiver라는 의미로 표현해낸 곡입니다.

나의 DJ는 알고리즘 음악처럼 물처럼 흐름에 얹힌 시간

이승환 책임 | 이수페타시스 마케팅팀

입사 후 만 5년이 지났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업무는 나름 익숙해졌지만 아침잠이 많아서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입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좋아하는 밴드 노래를 틀어 놓고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듣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이 노래의 독특한 분위기가 좋아서 출퇴근길에 자주 듣고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은 부부 듀오 캔자스 조 맥코이와 멤피스 미니가 1922년 미시시피 대홍수 피해자들의 시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플린의 거친 플레이로 거듭난 이 곡은 견잡을 수 없는 절대적 힘을 느끼게 하는 비현실적 비트가 매력이죠.

comment

곡을 여는 드럼 비트와 바로 이어지는 기타, 하모니카 멜로디가 바로 귀에 꽂혔습니다. 초반 드럼비트는 다른 여러 힙합 곡에서도 샘플링으로 사용 중입니다.

When the Levee Breaks

Led Zeppelin(레드 제플린)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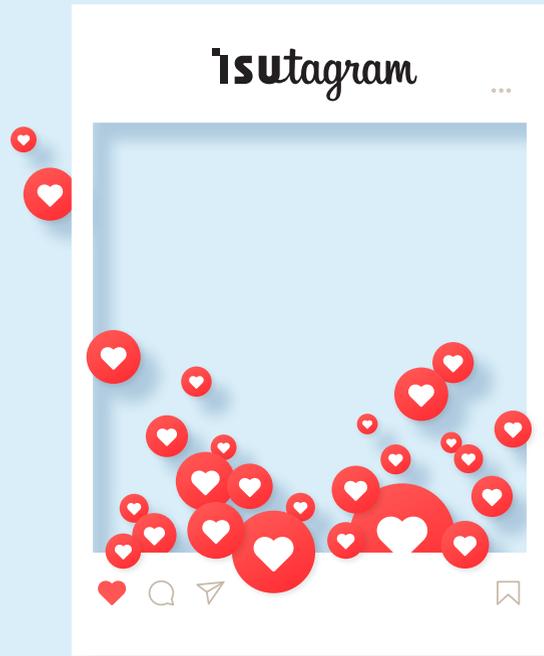
Children of the Sea
Black Sabbath(블랙 사바스)

The Temple of the King
Rainbow(레인보우)

Carry on Wayward Son
Kansas(캔자스)

When a Blind Man Cries
Deep Purple(딥 퍼플)

이수 가족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주변 모두가 함께 환하다!



이수타그램은 그동안 호응을 보여온 이수인의 소통 코너이다.
 계절감 담긴 사진이나 시사성 있는 이미지,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 관심사 등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넉넉히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수타그램은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수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한다.
 내가 갖지 못한 순간, 혹은 내게 없는 추억이라도
 이수 가족 내 누구의 것이든 나의 것으로 환하게 맞아들이는
 선한 교류의 장이다.



문성진 대리(이수엑사캠 기획팀)



거기 깃든 이야기를 오래 아끼는 일... 수집이란 결국 삶에 대한 사랑

저는 시계를 모으는 취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시계에는 스마트 워치가 주지 못하는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주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이 작은 기계는 마치 나와 물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퇴근 후 태엽을 돌리며 내일 어떤 시계를 찰지 생각하는 시간도 하루 중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계에는 저마다의 혈통과 역사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지내면서 만들어가는 시간과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날 시계, 첫 면접을 함께한 시계, 진급 기념으로 산 시계 등 나와 만들어간 이야기가 있고 그 추억을 떠오르게 하기엔 더욱 정이 들어 내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등학생 때 아버지께 선물 받은 첫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든 물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든 의미 있고 소중한 물건이라면,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하다가 모든 게 빠르게 바뀌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가끔 그때 그 순간으로 데려가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집 #시계 #추억 #그때그순간



김나영 선임(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월급은 통장을 스쳐갔지만...^^...

진심 행복했던 2023년~ 모두 모두 감사!!

직장인이 된 제 모습이 아직도 낯설기만 한 1년 차 사원입니다. 취업을 한 작년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답니다. 먼저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리고 친한 친구들에게 취업 턱도 내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갔지만...^^... 행복했어요. 진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고생한 저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아직 출고되지 않았지만 이름도 '포포'로 지어 놓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평행 주차가 걱정인데 혹시라도 해매고 있는 스포티지 한 대를 보시면...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인복이 많은 저는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상 부족한 부분도 따뜻하게 품어 주시고 좋은 모습만 봐주셔서 걱정이 많았던 첫 사회생활을 무탈히 보내고 있습니다. QA팀원분들과 29기 동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2024년에는 더욱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한순간 #무한감사 #포포



윤혜령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총무파트)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좋은 맛집 추억
돌 위에다 구워 먹는 조개구이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맛난 음식에 대한 기억은 더 진하게 새겨지죠. 저의 기억 서랍에 좋은 추억 하나 오롯이 남아 떠올리면서 긍정 에너지를 삼게 됩니다.

여러분은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해산물을 유난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조개구이가 정말 맛있답니다. 요 조개구이집은 경주에서 발견한 <원조 석이네 조개박사>라는 맛집이에요 <나는 솔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10기 영수, 정숙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긴 독특하게 불판 아닌 돌 위에다 굽는데요, 바쁘셔도 직원분께서 전문 가적 손길로 구워 주는 서빙이 기분이라 직접 굽는 수고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주고, 김치 양념, 치즈에도 드실 수 있어요~ 적다 보니 제가 더 먹고 싶어지는 매직~ 여러분도 경주 가실 때 한 번 드셔 보세요

#맛집 #조개구이 #추억 #경주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결엔 놓치지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지금 이 순간, OTT

(Over-the-top)



TVING



wavve



WATCHA



Disney+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면의 태업 감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실로 많다.
내가 내 맘에 들도록 성숙하다는 건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늘어가는 것일 터!

이 또한 균형의 일이어서 새해에는
균형 있는 일상과 조화로운 나를 통해
여물어 가고 싶다.

눈과 맘을 잡아 끄는 OTT의 세상은 정말 넓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은 무궁하다.
잘 만난 콘텐츠와 왕성한 소화력은 존재의 용량을 키워
일의 에너지로 재충전되리라.





최원규 대리 (주)이수 기획팀

최근엔 역노화의 비밀을 밝히고자 마루타가 되어 적절한 운동, 그리고 항염 식품, 항산화제 등 섭취와 함께 주말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즉각적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잇몸과 치아 관리에 꾸준히 시도해 본 비타민C와 소금 가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NETFLIX 리턴 투 스페이스

2022 | [12+] | 다큐멘터리 영화, 과학 & 자연 다큐멘터리, 미국 영화

NASA도 못 꾸던 꿈 - 우주 식민지, 일론 머스크의 도전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동참하고자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챙겨보는 와중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의 우주선 발사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류는 오래전 달에 도달했고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였음에도 이후 수십 년 동안 우주 관련하여 새로운 진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을 필두로 NASA도 못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소명인 우주여행부터 우주 식민지 개척이 먼 훗날 실현된다면 도전의식이 충만한 ISU 분들도 동참하여 화성 출장을 한 번쯤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NETFLIX 카운트다운: 인스퍼레이션4, 우주로 향하다

2021 리미티드 시리즈 5화 | [All]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우주 비행 프로젝트로 지원부터 선발, 우주선 탑승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단순히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관용, 변영,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선발되어 몽글한 사연과 인류의 사명감을 보여주는데, 제목 그대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인스퍼레이션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우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화성에 한 번쯤은 갔다 와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자윤 선임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근 포항에 카라반 글램핑장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근처의 카페에 들어가 비 오는 바다를 보면서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엔 불멍을 함께할 수 있는 글램핑도 추천합니다.



Disney+ 위대한 쇼맨(The Greatest Showman)

2017 | [12+] | 드라마, 실존 인물, 뮤지컬

엄지척 영화 - 평생 남을 음악, 씨줄 목직한 깨달음의 스토리, 날줄

이 영화를 처음 접했던 건 중학생 때였는데, 아직까지 줄거리나 OST를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OST가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쓰는 순간에도 이 음악을 듣는 중인데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율이 느껴집니다. 영화는 남들과 다른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내고 포용하면서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나는 소중하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는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위대한 쇼맨'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꼽게 됩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무너지기도 한다는 깨달음도 얻는 영화라 이수 가족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NETFLIX 어바웃타임

2013 | [15+] | 영국 작품, 로맨틱 코미디 영화

살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 같습니다.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면 어떤 행동을 할지 그에 따른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그런 생각을 담은 판타지 장르의 영화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남자친구랑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내세울 거 없는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제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팀과 메리의 결혼식에서 팀의 아빠의 말인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쯤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바다에서 새로 만난 나

예술 소비자로 일상을 채우는 내비게이션 일상 예술화

또다시 맞는 새해다.
보다 나아진 자신의 스케치 앞에
정갈히 고쳐 앉는 시간,

때마다 밥을 먹듯 맘도 먹는 것.
지금까지 유지하던 반경을 넓혀야 할 때
내면의 용량을 예술로 늘려보자.

예술의 다양한 장르는
저기 저만치서 각자 부풀리며 빛나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살아있음을 누리는
우리는 예술 소비자.

거기서 얻게 된 감성과 에너지는
내 삶의 축, 일과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



사람을 담는 그릇의 예술 정신을 배양하는 인큐베이터



구독자 | 118만 명

건축예술은 공간에 대한 사랑이며
삶을 세우는 에너지다.
건축이 공학이면서 어떻게 예술이어야 하는지
목에 힘 빼고 조곤조곤 일러준다.
건축예술을 다루되 무겁지 않게
여행안내처럼 재밌게 인문학적 지평을 넓혀준다.
국내의 건축물 해설과
해당 건축가의 철학도 짚어주며
다루고 있는 재생목록도 방대해
기성 방송 콘텐츠 버금하는 전문성을 자랑한다.
2021년 9월 첫 업로드 후 1년 10개월 만에
구독자 수[앗스 님] 백만 명을 넘었다.

재생목록 - 동영상 127개
세계 건축 TOP100 동영상 17개

» 스페이스 컨설팅그룹 대표 건축가
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가
홍익대 교수
하버드대 대학원 외 2곳 건축설계 석사
저서: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
공간의 미래 /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
어디서 살 것인가 / 내 집 짓기 외 다수



7인분 노비를 자처한 흰머리 학자 시를 살아내는 문학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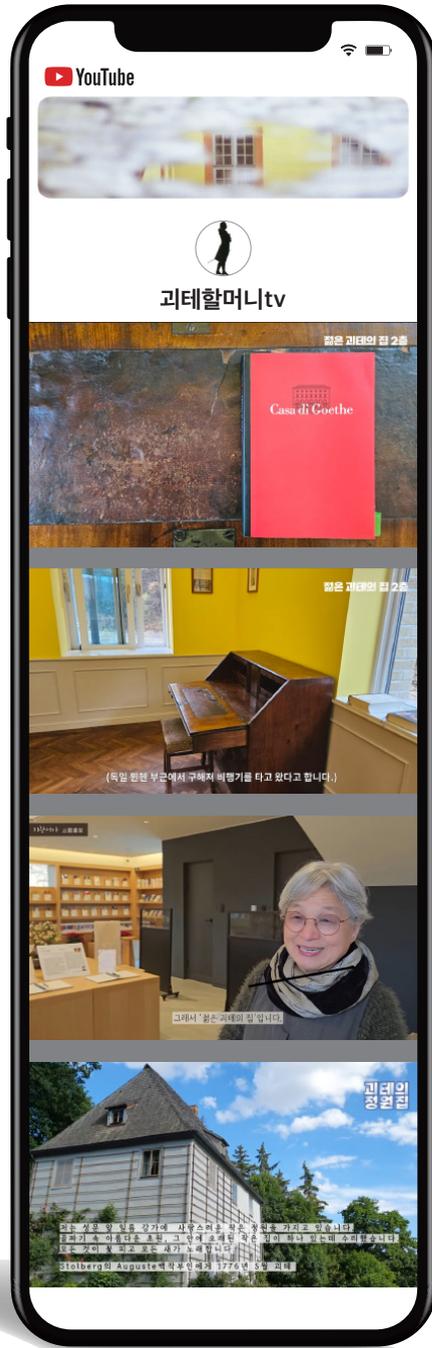


구독자 | 1.83만 명

멀리서 보면 시를 사는 학자,
가까이 보면 단거리선수 할머니.
서울대 독문과 교수 은퇴 후, 경기도 여주에
후학들의 학문 공간으로 여백서원을 꾸려
자칭 7인분 노비라 이르는 전영애 교수의 문학 채널이다.
평생 독일 문학에 헌신한 세계적 석학으로
한국보다 독일에서 더 유명한 괴테 전문가이다.
은퇴를 했다지만 현역보다 분주히 독일과
여주를 오가며 번역가로서 짬짬이 남기는
일상이 촘촘히 담겨있다.
드나들다 보면 이슬 풀밭을 거닐다 바지자락 젖듯,
독일문학을 통한 서양문학의 진수를
챙겨 지니게 된다.

재생목록 - 동영상 135개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 / 여백서원 / 파우스트 /
프란츠 카프카 / 책시, 시인 / 라이너 쿤체 /
그림동화 / 괴테와 발라데 / 따옴표 칼럼

»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객원연구원,
독일 뮌헨대학교 강사, 한국괴테학회 회장 지냄
괴테의 시 770여 편을 15년에 걸쳐 완역 /
괴테, 헤르만 헤세, 카프카 등 60여권의
독일 문학 작품 번역



미술관에서 길을 잃은 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예술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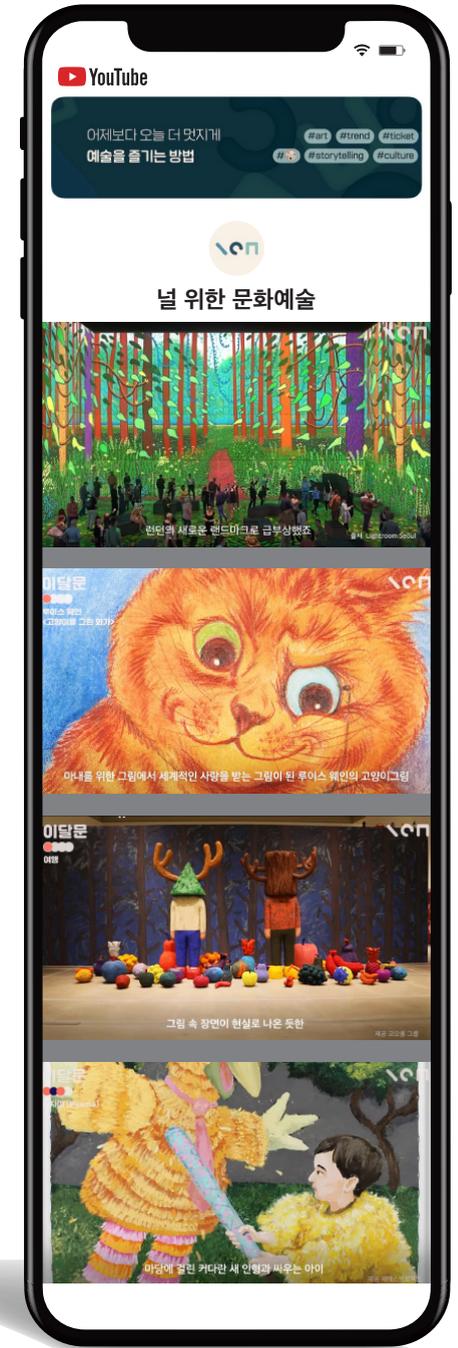


구독자 | 33.8만 명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이후 삶은
우아해진다. 어려운 건 딱 질색인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야기 미술관!
쉽고 재미있는 미술의 세계를 알게 해준다.
예술의 재미는 예술에 담긴 이야기에서 온다.
그림 이야기를 맛있게 전달하는 문화예술
스토리텔러답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주고,
영감을 주며,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예술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빙긋, 허탈(?) 한 웃음이 날 수도 있다.
내가 여길 왜 이제 알았지?

재생목록 - 473개
인생 작품 / 인생 전시 / 이달의 문화예술 /
흥미로운 예술책 모음 등의 카테고리로 굵직한
서양미술 작품 스토리 외 요즘 트렌드를 짚어주는
 핫한 전시회 해설이 알차게 담겨있다.

» 예술에 대한 부담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예술적 교류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유쾌한 안내자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예술의 이유>에서도
예술 스토리텔링이 진행 중이다.



청각을 거쳐 심장에 닿는 예술 귀에 쏙 들어오는 클래식 맛집

▶ 김윤경의 소소한 클래식

구독자 | 18.1만 명

소소한 클래식의 주인공, 소콜샘은
피아니스트 김윤경!
클래식 팬들과는 찐한 소통을,
클래식에 서툰 이들에겐
다리 역할을 하고자 문을 연 채널이다.

맛깔스러운 클래식 입담과 쏙쏙 귀에 들어오는 레슨에
감동적인 음악가 인생 스토리도 가득한 클래식 맛집.
풍성한 음악이 함께 하는 소소한 클래식 사랑방이다.
부담 없이 귀를 열면 힐링은 부수입,
생이 풍성해진다.

재생목록 - 465개
음악 감상법 / 공연리뷰 / 국제 콩쿨 실시간 중계 /
읽어주는 클래식 / 클래식 예능 맛 ZIP /
음악 감상 등의 카테고리
깨알 입담이 클래식의 세계로 훑 끌어당긴다.

▶▶ 서울대 음악대학원 석사
이스트만 음악학교 박사
수원대 음대 겸임교수
숙명여대 외 다수 대학과 기업 강연 출강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하는 물론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 등 클래식 대중화에
특별한 애정을 품고 활동하고 있다.



삶에 가장 가까운 예술, 삶의 엑기스를 농축한 영화로 풍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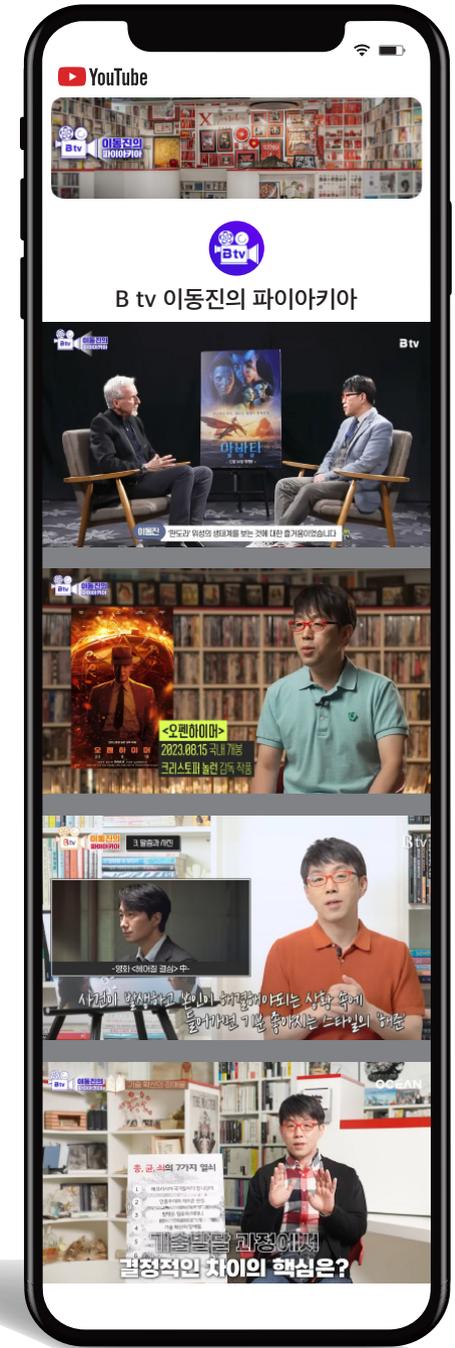
▶ B tv 이동진의 피아키아

구독자 | 50.3만 명

영화평론계의 아이돌 이동진의 작업실 & 아카이브
피아키아에서 영화와 교양 콘텐츠를 제공한다.
남다른 관점의 영화 해설을 통해 교양을 넓혀준다.
작업실 이름은 라틴어로 '섬 나라'라는 뜻으로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여행지다.
구독자를 피아니아라 칭한다.
영화 해설은 물론 <이동진의 사이버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영화 용어나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도 인기 있다.

재생목록 - 동영상 326개
초특급 초대석 / 나도 영.잘.알! / 지금 이 영화 /
NOW & THEN / 이동진 매거진 /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 / LIVE 스트리밍 등의
카테고리에 하루 콘텐츠의 깊이와 넓이에
놀라게 된다.

▶▶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시간 /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 /
필름 속을 걷다 / 이동진 독서법 /
질문하는 책들 /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
받은 책이다 등을 썼다.



깊은 겨울 어둑한 퇴근 무렵
 동료들과 혹은 옛 친구,
 느긋한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식으로
 즐겁게 얼얼하고
 화끈하게 땀기는 매운맛을 만나보자.
 테이블을 꽉 채운 푸짐한 아귀찜이라면
 이 매운 추위의 나날을 이길 힘이
 충전되리라…….
 다시 우리는 강해진다.

아귀찜

스토리셰프가 차려내는 식탁
 못생겨서 죄송·먹어보면 황송
 핫! 하게 스트레스 날려주는



얼마나 못생겼길래… 아귀의 흑역사

못생겨서 죄송한 물고기, 아귀라는 생선이 있다. 조선의 학자 정약전
 이 흑산도 유배 시절 편찬한 해양생물학 서적 <자산어보>
 에서는 조사어 혹은 아귀어라고 했는데 모두 생김새
 에서 딴 이름이다. 조사어는 낚싯줄을 닮은 물고기
 라는 뜻이다. 머리에 낚싯줄같이 생긴 촉수를 좌우
 로 흔들어 먹잇감이 혼란을 일으키면 꿀꺽 통으로
 삼킨다.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귀다. **얼마나 흉측
 했으면 배고픈 귀신이라는 뜻의 아귀(餓鬼)일까…**



아귀의 생김은 머리 반 몸통 반인데 과장하면 머리 중에서도 입이 다
 차지하고 있어 마치 굶주린 귀신이 울부짖는 듯하여 붙은 이름이다. 본래 아귀는 불
 교 경전에 나오는 굶주리고 목마른 귀신이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지옥에 떨어
 졌는데 배는 산더미 같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이라 음식을 삼킬 수 없어 늘 배고픔
 과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형벌을 받았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흉측한데다 무엇
 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제 몸통보다 큰 물고기도 통
 째로 삼켜 “아귀 먹고 가자미 먹고”라는 말도 생겼다. 아귀를 잡으면 종종 뱃속에 가
 자미나 도다리가 들어있어서 뜻밖의 횡재를 이르는 말이다. 지방에 따라 물곰, 물돔,
 배기라고도 한다.

옛날 뱃사람들은 물고기 물골에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명명했을 정도니 어쩌다
 그물에 걸려도 반기지 않았다. 물뱃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잡히면 바로 “뱃
 병” 하고 바다에 던지면서 생긴 이름이다. 워낙 못생긴 데다 흐물흐물 찢뜩찢뜩 먹을
 나위가 없어 많이 잡은들 달갑지도 않거니와 혈값에 넘겼다 해도 웬만하면 그냥 버
 려져 길고양이들이나 먹는 신세였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이학규가 영남 지방을 여행하며 현지 음식을 소개한 글 중 아귀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데 여기서도 아귀가 얼마나 천대받던 생선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영남 바닷가 마을에서는 별 괴상한 생선을 다 먹는다. 커다란 입에 몸통에 바로
 붙어있으며 이름은 아귀어(餓鬼魚)이고 현지에서는 물뽕이라 부른다. 먹는 음식
 치고는 참으로 구차하다….

천덕꾸러기에서 귀하신 몸으로

본격적으로 아귀를 먹기 시작한 건 6.25 때 피난지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이었다. 전쟁통에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세월이라 이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까지 거들떠보게 되고 개종엔 아귀도 있었다. 이때 담백한 아귀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점차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생선이 되었다.

그 무렵 마산에서 장어국을 팔던 흑부리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들이 아귀를 잡아와서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흑부리 할머니는 비늘도 없는 데다 온통 점액이 끈끈한 아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래 콧물 질질 흘리는 생선을 우째 묵노?” 하며 밖으로 던졌다. 얼마 후 추운 겨울 날씨에 얼었다 녹았다 하며 잘 건조된 아귀를 보고는 북어찜 만드는 방식으로 조리해 내놓았더니 반응이 좋았다. 그때부터 아예 그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되었고 이게 오늘날 아귀찜의 시초였다. **마산에서는 아귀의 사투리를 써서 아귀찜으로 통한다.**

역전된 아귀 대접 - 아생 역전

오늘날 이토록 사랑받는 아귀의 생은 역전 그 자체다. 전통 마산아귀찜은 겨울 아귀를 바닷바람에 꾸덕꾸덕 말려 조리 직전에 불렀다 쓰므로 식감이 좋다. 다시마, 무 등을 넣고 삶은 천연조미료 국물로 살려낸 감칠맛이 깊다. 찜이라고는 하나 찜통에 찌지 않고 아귀와 콩나물은 먼저 익힌 후 미더덕을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 파, 마늘, 양념에 찹쌀가루 푼 물을 걸쭙하게 버무려 내는 요리로 속이 화끈할 정도로 맵다. 그 정도 화끈도 성에 덜 차면 진하게 푼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어 보시라!!



마산아귀찜이 선두주자라면 생아귀를 사용하는 군산 아귀찜도 고유한 매력으로 발길을 잡는다. 여수에도 아귀찜 거리가 생길 만큼 부상하고 있다. 마산 어시장에 아귀요리 식당이 모여 있는데, 지자체에서 <마산아귀찜> 거리로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인천 용현동에도 아귀의 별명에서 딴 <물텀벙 거리>가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입에 짹 붙는 맵짱맵짱 밸런스 - 찰진 탄력 아귀찜

아귀의 미덕은 한 마리에서 보드레, 사르르, 탕글, 쫄깃 등 실로 다양하게 누리는 점이다. 싱싱한 아귀로 알맞은 전처리를 거쳐 양념과 버무려 익히는 기본에 식당마다 조리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여타 생선이 흉내 낼 수 없는 부위별 다른 맛은 식감에 관한 한 입안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종합판이라 하겠다. 뼈가 있긴 해도 양칼리지 않고 순하며 입술 부위 포함한 껍질 비중이 커서 혀에 감기는 낭창한 식감부터 입천장을 간질이는 중간 부위와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촘촘한 밀도와 찰진 탄력으로 미식가들의 구강점막 전반에 사무치는 기억을 남긴다.

아귀찜 맛집에서 가끔 옆 테이블에 뽀얗게 나오는 지리나 맑은 수육을 시킨 커플이 눈에 띈다. 아귀를 상종하면서 어떻게 매운맛을 사랑하심? 애석하기 그지없으나 싱싱함으로 승부하는 순한 매력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균형 잡힌 맵짱맵짱에 두피까지 촉촉해지는 아귀찜은 떡볶이, 낙지볶음과 나란히 핫(?)한 K 푸드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게다가 K 후식의 종착 코스!! 남은 양념에 자작자작 볶아낸 밥까지 운몽으로 흡수하고 나면 오~천국에서도 이런 경지를 맛볼 수 있길 천천히 바라며 그 순간만이라도 착해질 테!

아귀의 효능

저지방 고단백으로 간과 위(대창)는 고소하고 쫄깃 담백, 아가미와 지느러미, 꼬릿살 부분 또한 특유의 맛이 있어 뼈 외에는 버릴 것이 없다.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 당뇨 등 성인병과 암을 예방한다. 고단백질의 흰 어육은 중풍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및 당뇨병 예방 효과 및 복어를 능가하는 주독 해소 작용과 속 쓰림의 위장을 시원하게 한다. 아귀찜과 탕의 주재료인 콩나물은 속취에 좋으며 필수 부재료인 미나리는 비타민 A, B1, C는 물론 철분, 칼슘, 인, 무기질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고혈압 환자나 심장병 류머티즘 신경통 환자들도 즐겨 찾는다.



다른 나라의 아귀요리

영어로 Monkfish인 아귀는 서양에서도 우리 못지않은 푸대접이었다. 바닷가재처럼 담백하긴 하나 못생긴 데다가 먹는 수고 대비 가성비가 낮아 부자들이 외면했던 터라 **“가난뱅이 바닷가재(poor man's lobster)”**라 했다. 아귀가 서양의 고급 요리 재료로 자리잡게 된 건 1차·2차 세계대전 전후 수산물이 부족하면서였다. 별 수없이 아귀까지 먹다 보니 웬걸, 생긴 것과는 딴판 진가를 알게 되었고 급기야 아귀의 인기는 수직 상승, 귀족 대접을 받는 중이다.

일본 - “동짓달 아귀는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맛 보라”는 말이 있다. 아귀 사랑이 어찌나 유별난지 아귀 해체 시연조차 상품화될 정도다. 아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요리사가 능숙한 솜씨로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17c 말 일본 농업서 <본조식감>에도 소개된 것으로 보아 3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귀 사랑이다.

특히 11월~2월까지 추운 겨울철에 맛있는 아귀의 대표적 겨울 별미는 아귀 나베로 우리의 맑은 아귀탕에 가깝다. 일본에서 아귀는 못 먹는 부위가 없다. 지느러미는 쫄깃한 식감, 흰색 볼살은 담백한 맛, 콜라겐이 풍부한 껍질은 초무침, 아가미는 전골, 위와 난소는 특급 별미로 쳐서 수컷은 상품가치가 떨어질 정도이다. 그중 최고로 꼽는 것은 바로 아귀의 간이다. 고유명사화되어 세계적으로도 일본어 그대로 <안키모>라 불리며 바다의 푸아그라로 알려질 만큼 진미로 친다. 어금니는 잠시 쉬면서 혀와 입천장으로 집중하다 보면 비단이 휘감는 듯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첫 맛은 고소, 중간 맛은 담백, 목 넘김 직전의 크림미한 지방의 농후한 맛이 섬세하게 스민다. 또한 아귀 간을 술로 씻거나 술 찜 형태로 살짝 찌서 간장 소스나 유자 폰즈 소스에 먹는데, 고급 일식집에서 코스 요리의 메뉴로 나오거나 일부 고급진 스시집은 아귀 간을 이용한 초밥을 내놓는다.



일본 안키모(아귀 간)



영국 아귀 소금구이



프랑스 아귀 부아베스

영국 - 아귀로 피시 앤 칩스부터 베이컨 말이, 구이 등등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했으나 가장 고급스러운 주 요리로 하는 건 소금구이다.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소금만 뿌려 구워 내는데 바닷가재보다 더 비싸게 대접받는다. 유튜브로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된 **고든 램지의 아귀요리** 영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다.

프랑스 - 고급 요리로 이름난 서양식 해물탕인 부아베스를 끓일 때 주재료 생선은 주로 아귀를 쓴다.

장안의 이름난 아귀요리 전문점

가락골 마산아구찜

많이 맵지 않아 매움 공포증이 있어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대신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가득하다. 아귀찜과 탕, 해물찜과 탕 간단 메뉴로 진하게 승부한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듬뿍 친 볶음밥이 나온다.

📍 서울 송파구 송이로19길 3, 1층 📞 0507-1370-6666

홍박아구찜

매일 부산에서 경매를 통해 구매한 국내산 생아귀만을 사용한다. 아귀 요리를 시키면 아귀 육수로 끓인 콩나물국, 호박전 등 푸짐한 밑반찬이 나온다. 손질한 아귀 살에 굵은소금을 뿌리고 얼음으로 덮어 쫄깃한 식감을 과학적 접근으로 구현한다. 쉽게 맛보기 힘든 아귀의 간, 알집, 곤이 등 내장도 맛볼 수 있고 점심 한정 메뉴 ‘생아구탕’도 인기 메뉴다.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길 11 📞 02-337-3066

성수AGU

독섬역에서 걸어서 5분. 서울숲 근처의 아귀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아귀찜 하면 떠올리는 정통 아귀요리라기 보다 색다르고 세련된 분위기로 가족 연인 단위의 상급한 맛집이다. 2개 층을 매장으로 사용하는 산토리니 풍 모던한 건물이나 인테리어는 퓨전 한식 스타일로 회식장소로도 좋다. 퓨전 표방에 걸맞게 곱창튀김 아구찜이 시그니처 메뉴다.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원길 48-1 AGU 📞 0507-1474-5667



노벨상은 인류의 삶에 뛰어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매년 수여되는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상이다. 스웨덴의 발명가, 과학자로 평생 355개의 특허를 보유했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과 연계된 특허 관련 이슈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메시지를 짚어본다.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노벨상과 특허, 기업 전략의 도구로!!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그중, 과학계의 수상은 특허와 무관할 수 없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온 인류에게
긴장감과 불안감이 컸던 만큼
생명과 직결된 화학 생리학 분야의 수상자들은
발 빠르게 국제적인 특허를 신청했다.
이는 기업으로 링크되어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과 연계된 기업,
바이오 관련 특허를 짚어보며
해당 분야의 미래를 조망한다.

글_ 이재향(칼럼니스트)

2023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여한 2명의 과학자 공동 수상

공동발명자로 이름 올린 특허 - 전 세계 67건

커털린 커리코

2012년 mRNA관련 특허 출원 직후
자신의 회사를 별도 설립

▶ 화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과
기술협력

팬데믹 당시 빠른 백신 양산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

드류 와이스먼

38개 발명특허 모두 국제특허로 출원

▶ 25개국에 출원된 특허만 14건

▶ 실시권 - 화이자, 모더나 등
거대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사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

(초상화 출처: www.nobelprize.org 니콜라스 엘메헤드(Niklas Elmehed))

2023년 노벨상의 특징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커털린 커리코 교수와 드류 와이스먼 교수였다.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에 기여한 점이 위원회가 밝힌 선정 이유였다. 두 교수가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특허는 미국에 18건을 포함해 유럽 5건, 일본 4건, 중국 3건 등 전 세계에서 모두 67건이 있다. 한국에서도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정제된 변형RNA를 포함하는 꿈제제> 등 총 3건의 특허에 발명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

특히 와이스먼 교수는 자신의 38개 발명특허 모두를 국제 특허로 출원, 25개국에 출원된 특허만 14건에 달한다. 학문적인 성취는 물론 글로벌 사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출원인

이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인데 현재는 해당 실시권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에 넘어간 상태이다. 커리코 교수 역시 2012년 mRNA관련 특허 출원 직후 자신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화이자나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등과 기술협력을 지속해 팬데믹 당시 발 빠른 백신 양산을 가능케 했다.

노벨상은 연구성과에 대한 수십 년 장기 검증 관행으로 악명 높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의학 과학자들이 핵심 연구를 수행한 지 평균 21년 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생리의학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는 이른바 급행 노벨상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메달 출처: www.nobelprize.org)

노벨상과 특허

노벨상의 목적은 인류에게 이로운 발견과 창조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기돼 있다. 노벨상과 특허의 목적이 같다.

특허란 이전에 없었던 물건, 물질을 최초로 만들어 낸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공개했을 때, 그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한이다. 특허권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권자에게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즉 배타성을 부여,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 특허와 국제적인 기

준을 적용하는 표준특허로 구분되고 있다.

노벨상이란 수상만으로도 영예로운 것이다. 하지만 수상을 하고도 특허가 없으면 시장으로 연결시키기 힘들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수상자들의 논문과 특허 현황 분석에 따르면 노벨 화학상 및 생리의학상 논문들 대부분이 특허와 직결되어 있다. 유력한 석학과의 공동발명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발명자 특정>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신이 해당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임을 진술하고 서명하는 발명자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특허 등록이 불가하다. 나중에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게 발각되는 경우 그 특허는 무효가 된다. 그만큼 발명자를 중시하는 환경이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술을 먼저 구현한 경우에만 발명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분쟁

최근 미국 대법원에 매우 이례적인 특허 사건이 상고되었는데 이는 “발명자 특정”문제였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타스쿠 교수와 일본 오노약품공업은 폐암 치료제 <옵디보> 관련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 발명자 란에 공동 연구자였던 미국 과학자 두 명의 이름을 뺐다. 문제는 <옵디보>의 전 세계 연 매출이 무려 7조 원이다. 당연히 이 미국 과학자들은 소송을 냈고 미국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했다. 이에 오노약품공업은 대법원까지 항고를 한 상태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20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카스9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는 자신이 받은 상의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갖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특허전쟁이 7년간 지속되었다. 2012년 다우드나 교수의 UC 버클리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표했으나 당시 연구팀은 이 기술을 세포 안에서 시연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2013년 1월 MIT-하버드 브로드연구소의 평장 연구팀은 이를 인간과 생쥐 세포를 대상으로 시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우드나 연구팀은 2012년 5월, 평장 연구팀은 2012년 12월, 각각 특허를 출원했지만 평장팀이 신속심사제도를 활용해 특허를 먼저 받으면서 진행된 전쟁이었다. 결국 2022년 2월 미국 특허청의 심판원은 평장 연구팀의 손을 들어줬다. 노벨상은 다우드나 교수가 받았지만 향후 크리스퍼에 기반한 의약품 개발 시 해당 기술 사용료는 평장 측에 돌아가게 된 것이다.

특허를 거부한 노벨상 수상자

X-선 발견 공로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빌헬름 뢰트겐**은 자신의 성과는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며 특허를 거부했다. 페니실린 발명으로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 역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바라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1977년 방사성 면역측정법(RIA) 기술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로절린 엘로** 역시 같은 생각으로 질병을 찾기 위한 혈액검사법에 특허를 사양했다. 2018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 중 **프랜시스 아널드**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유도 진화 기술을 개발, 진화 법칙을 깼다. 다른 연구결과로 수많은 특허를 보유했지만, 정작 유도 진화와 관련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

특허만료와 바이오시밀러

특허만료는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히 따지자면 240개월에서 좀 모자란다. 설정등록 시작일부터 특허등록까지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어 세계시장에서 활발하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가능성이 커졌으며 우리산업에도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야다.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나면 해당 약품의 주성분을 복제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세포를 통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

을 운영했다.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국내 개발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은 연간 약 25%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다.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휴미라-만료(미국 2023) / 옵디보-미국·유럽 2026/ 키트루다-유럽 2028·미국 2036 등이 있다.

이수그룹 내 이수앱지스에서 작년 초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사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벨상과 한국 기업의 특허

2019년 노벨 생리학상 / 올리패스 수상자는 윌리엄 케일린 교수와 피터 랫클리프 교수, 그렉 세먼자 교수다. 이들의 저산소유도인자 HIF1A(히프원알파/Hypoxia-inducible Factor 1 Alpha) 단백질 연구는 암

과 빈혈 등 산소 농도 관련 치료에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국의 RNA치료제 플랫폼기업 올리패스는 HIF1A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인공유전자 OliPass PNA에 대하여 유럽, 러시아에 이어 미국까지 특허를 취득했다. 올리패스의 인공유전자 플랫폼을 활용해 면역항암제 약물들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고, 특허를 취득한 HIF1A 억제제와 면역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방식으로 항암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노벨 화학상 / 튜젠 수상자는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카스9>기술을 개발한 다우드나 교수와 샤르팡티에 교수다. 이는 특정 유전자에만 결합하는 효소를 사용해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기술로 불치병인 각종 유전 질환을 고칠 수 있어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다. 인공 장기 개발을 위한 미니 돼지나 병충해에 강한 쌀 등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향후 5~10년 내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유전질환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



특허를 거부한 노벨상 수상자

1901 노벨 물리학상 X-선 발견		1945 노벨 생리학상 페니실린 발명		1977 노벨 생리학상 방사성 면역측정법		2018 노벨 화학상 유도진화 기술	
빌헬름 뢰트겐		알렉산더 플레밍		로절린 엘로		프랜시스 아널드	

온 인류가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주요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 전망

치료 범위	특허만료 시기
HUMIRA (adalimumab)	휴미라: 자기면역질환 만료됨(2023년)
OPDIVO (nivolumab)	옵디보: 면역항암제 미국 2026년, 유럽 2026년
KEYTRUDA (pembrolizumab)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미국 2036년, 유럽 2028년

ISU 이수앱지스 ISU106 (러시아 제약사 알팜사) ISU106 기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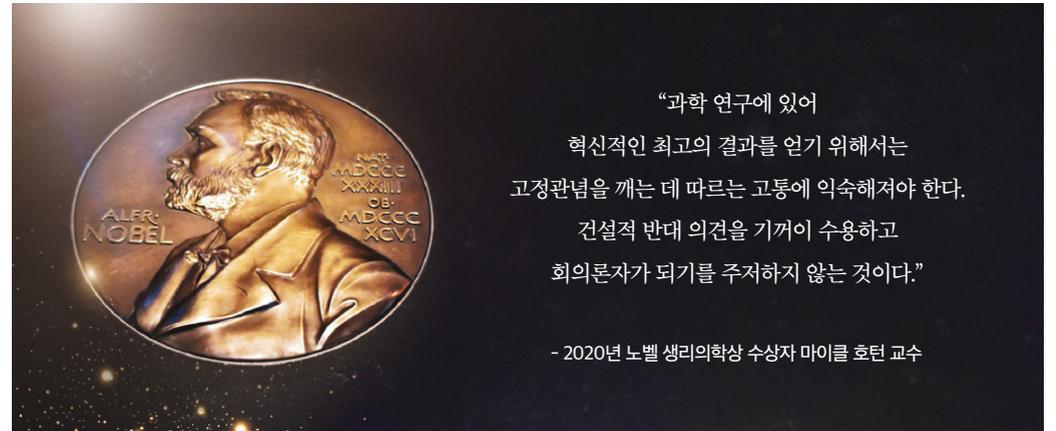
서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톨젠은 20년 넘게 유전자 가위 분야에 한 우물을 파 왔다. 외부 기술 없이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곳은 톨젠이 유일하다.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그동안 밀어두고 있던 톨젠의 <크리스퍼-카스9> 관련 특허등록을 8년 만에 받음으로써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가능성을 활짝 열게 되었다.

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 / 삼진제약 수상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한 하비 J. 알터, 마이클 호턴 교수, 찰스 라이스 교수였다. 이들의 연구로 처음 바이러스의 존재를 밝혀낸 것은 1975년이였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급성 간염을 거쳐 간암 발생 확률이 100배 높아진다. 이 발견 이후, 전 세계 연구팀이 C형간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매진했으며 그 성과로 나온 소발디는 최초의 C형간염 치료제로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했다.

한편, 한국의 삼진제약은 자체 개발한 피리미딘디온 유도체인 항바이러스 화합물이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차단과 세포 증식 억제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06년 이 신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미래를 보는 창, 특허 - 기업의 전략 도구로!

특허는 미래를 보는 창이다. 당대의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진화된 기술과 지식, 지혜가 집대성된 문헌으로 한 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모두 특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해마다 신규로 출원되는 특허가 총 300만 건가량 된다. 이렇게 쌓이고 모인 특허가 현재 지구상에 약 4억 5천만 건 정도다. 각국 특허청은 이를 전산화해 공통된 기준과 포맷으로 정제 가공한다. 이른바 특허 빅데이터이다. 모든 것이 첨단 테크놀로지로 수렴되는 오늘날 특



(메달 출처: @vasilechak, Unsplash)

허 빅데이터는 해당 기술을 포함해 투자, 인사,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가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요긴한 경영 도구이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보면 그들이 시장에 내놓을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읽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비즈니스 전략 도구로 활용한다. 지난 세기가 지정학적 관계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정학, 즉 기술 패권주의 시대이다. 기정학적 측면에서 특허는 산업, 경제는 물론 국제정세와 국가 안보의 위상을 가르는 절대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노벨상 수상자의 메시지

“과학 연구에 있어 혁신적인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따르는 고통에 익숙해져야 한다. 건설적 반대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고 회의론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한다. 건설적 반대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고 회의론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마이클 호턴 교수의 말이다. 그는 <리카싱응용바이러스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자신의 논문을 실었던 사이언스지의 검토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회의적인 질문을 받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끝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한다. 영혼의 불을 켜 놓아야 가능한 이런 자세는 과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과 조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이수 가족 모두가 새해 벽두에 새겨둘 만한 노벨상 수상자의 메시지다.

참고 자료: SERICEO <특허로 보는 미래> 유경동 강의
문헌구췌 <발명, 노벨상으로 빛나다>

2023. 11. 17~2024. 2. 2

르 코르뷔지에 / 난나 딘젤 / 르네 가브리엘 / 샤를로트 페리앙 / 장 프루베 / 앙드레 소르네 / 스튜디오 BBPR / 립스 바고

르 코르뷔지에 등 공간 예술가들의 가구, 전후 유럽 공공디자인 황금시대 조명



디자인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 전후 유럽의 가구를 통해 삶과 예술에 대해 생각해 보길 제안한다.

이수그룹의 문화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디자이너들의 공공디자인 가구를 한자리에 모아 가구 디자인의 황금시대를 조명하는 <공공디자인, 전후 유럽의 가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 르네 가브리엘, 장 프루베, 샤를로트 페리앙, 앙드레 소르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건축 스튜디오 BBPR과 립스 바고, 덴마크의 난나 딘젤의 공영주택, 대학 기숙사, 학교, 도서관, 사무실, 구세군회관, 재난민 시설, 리조트 등 공공 장소나 공공 기관을 위한 가구를 소개함으로써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여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를 꿈꾼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살펴본다.

(전시 전경 사진: 르모듈러)

다수의 삶의 질을 위한 공공디자인

이번 전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상적 이미지, 즉 행복한 중산층 가정과 공간이라는 원형적 상이 심어졌던 1950~60년대 유럽의 공공디자인 가구를 한자리에 모아 가구 디자인의 황금시대를 조명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디자이너들의 이상은 예술과 기술이 접목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유럽 공간예술에 획을 그은 탐 디자이너들의 공공장소를 위한 가구를 통해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여 모두를 위한 공공가치를 꿈꾼 디자이너들의 작업을 살펴본다.

르 코르뷔지에부터 난나 딘젤까지

전시에 소개되는 디자이너들은 역사의 전환기에 각각 고유한 조형언어와 디자인 철학으로 가구 디자인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들이다. 기능적 실용성과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가구에 몰두, 스타일과 형태는 물론 새로운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가구 디자인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러한 시도와 실천은 디자인사의 새 이정표로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세군회관 테이블> Le Corbusier, Table, Cité de Refuge, 1932, France, Linoleum over wood, ash, enameled steel, 66.5(w)×66.5(d)×73(h)cm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구세군회관 테이블>은 르 코르뷔지에가 1929년 디자인한 건물인 구세군회관을 위한 가구이다. 디자인이 보여주는 간결함과 실용성은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시테 데스크> Desk, Cité Universitaire de Nancy, 1932
 Manufacturer: Les Ateliers Jean Prouvé, France, Painted bent steel, painted tubular steel, oak, aluminium, 100(w)×68.3(d)×73.7(h)cm
 <체즈 두 부와> Chair, Tout bois, 1941, Manufacturer: Les Ateliers Jean Prouvé, France, Oak, 41(w)×48(d)×81(h)cm

르네 가브리엘(René Gabriel)

<모델 103 격자형 의자>는 1943년에 디자인된 다이닝 체어이다. 단순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미적 가치를 잃지 않는 르네 가브리엘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쟁으로 피해를 겪은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저렴하면서도 아름다운 가구를 디자인해 프랑스 공공디자인 역사의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남았다.



<모델 103 격자형 의자> Chair, model 103 Caillebotis, 1941, France, Wood, 37(w)×39(d)×75(h)cm

장 프루베(Jean Prouvé)

<시테 데스크>는 낭시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이었다. 병원이나 교육용으로 설계되었으나 가정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전시작품은 초기 1932년에 생산된 것으로 상판이 오크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후 150종 이상 <시테 데스크>가 생산되었으며 후반에는 상판이 알루미늄 처리된 모델로 생산되었다.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미페르마' 시리즈는 아프리카 모리타니 경사도 광산지역의 미페르마 회사의 임원 아파트를 위해 디자인한 가구로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를 지니고 있다. 페리앙의 디자인 중 후반부에 속하는 중요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갤러리 스텝 시몽이 제작했다.



<사이드보드> Sideboard, La cité Cansado, 1960s
 Manufacturer: Steph Simon, France, Provenance: Apartments Miferma company, La cité Cansado, Mauritania, Laminate, plastic, plywood, steel, 160(w)×45(d)×72(h)cm

앙드레 소르네(André Sornay)

소르네의 실험 정신은 모듈화와 조립 시스템의 만남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발전과 가구 생산 방식에 획기적인 산업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대중적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소르네의 작업은 2004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시 이후로 프랑스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았다.



<옷장> Wardrobe, Late 1950s, Manufacturer: meuble sornay, France, Wood, steel, 105(w)×60(d)×202(h)cm



<스파치오 회의 테이블> 'Spazio' Conference Table, 1960s
 Manufacturer: Olivetti, Italy, Metal, wood, leather, 300(w)×110(d)×80(h)

스튜디오 BBPR(Studio BBPR)

스튜디오 BBPR은 이탈리아 밀라노 기반의 4명의 건축가가 1932년에 설립한 건축 스튜디오이다. 독특한 건축 양식과 함께 오피스 가구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파치오(Spazio)' 시리즈는 BBPR의 철학과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가구로 이탈리아의 디자인상인 황금컴파스상(Compasso d'oro)을 수상했다.



<콘그레소 책장과 데스크> 'Congresso' Shelf and Desk, Early 1970s
 Manufacturer: Lips Vago, Italy, Steel, 154(w)×98(d)×220(h)

립스 바고(Lips Vago)

밀라노의 금속 제련소 '바고(Vago)'사가 네덜란드의 '립스(Lips)'사와 만나 '립스 바고(Lips Vago)'가 탄생한다. 두 회사가 합병하며 만든 '콘그레소' 모델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네덜란드의 실용성이 만나 탄생한 수작이다. 1mm의 균일하고 고도로 계산된 두께의 철판만으로도 높은 하중을 지탱하고 무게를 분산하도록 설계되었다.



<ND150 배드민턴 체어> ND150 Badminton Chair, Early 1970s
 Manufacturer: Poul Kolds Savværk, Denmark, Metal, wood, cloth, 51(w)×51(d)×73(h)cm

난나 디젤(Nanna Ditzel)

덴마크 가구 디자이너 난나 디젤의 특징은 가족적 면모로 수렴된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을 가구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능적 디자인에 기반,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한다. 덴마크 디자인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덴마크 예술재단으로부터 평생 업적상을 받았다.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 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현정 과장
 (이수화학 총무파트)



노기성 상무
 (이수스페셜티케미컬 관리담당)



음두환 사원
 (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팀)



장재훈 사원
 (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조영근 수석
 (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채정국 차장
 (이수애플리케이션 제품파트)



하철호 책임
 (이수페타시스 기술2팀)

이수 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3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현정 과장(이수화학 총무파트)
노기성 상무(이수스페셜티케미컬 관리담당)
음두환 사원(이수스페셜티케미컬 QC팀)
장재훈 사원(이수건설 플랜트사업팀)
조영근 수석(이수페타시스 품질보증2팀)
채정국 차장(이수앱지스 제품파트)
하철호 책임(이수페타시스 기술2팀)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보호 원고 마감은 3월 12일입니다.

이수의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시대를 바꾸는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 핵심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기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NEXT IS U

